

실속 재테크

18년만의 부활 '재형저축'

7년 넣어야 비과세에 연리 4.7% 효과

내달 6일 출시 분기당 300만원 자유 적립 4%대 초반 금리... 학자금·노후대비 적합

과거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근로자재형저축(재형저축)이 다음달 6일 출시된다. 재원 부족으로 1995년 폐지된 지 18년 만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6일 재형저축 상품을 일제히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장기주택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형저축을 제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4%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연 4%로 책정(7년 고정금리로 가정)될 경우 4.7%짜리 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상품 취지나 고금리 상품에 대한 고객의 기대를 감안하면 금리가 높아야 하는데 예·적금 금리가 연 3% 초·중반대로 떨어진 저금리 상황에서는 솔직히 부담이 된다"며 "재형저축이 친서민을 지향하는 상품이기에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고객들에게 유리한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단일 금리체제로 상품을 내놓거나 기본 금리를 정해놓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0.1%~0.2% 포인트 가량 우대금리를 주는 방식 등을 고려 중이다. 재형저축 가입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가입기간은 7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10년 동안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금액은 분기당 300만원까지다. 연금 최대 12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자에 한정되며 7년 이상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선물은 디지털기기가 최고"

1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전자매장에서 PMP11 스마트플레이어,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가 졸업·입학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체험해보고 있는 모습.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상에서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이하 방통위)는 14일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4년 8월에는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 이용도 금지된다. 방통위는 인터넷 가입자가 증가와 함께 주민번호의 관행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하고 6개월의 제도 기간을 가졌다. 먼저 방통위는 3월 부터 일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이후에는 이를 전 웹사이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도 게임 및 성인콘텐츠 관련 앱을 중심으로 주민번호 사용 유무를 점검하게 된다. 방통위는 개정 법안으로 혼란을 겪을 중소 웹사이트 사업자를 위해서 13억 여원을 들여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운용한다. /박정렬기자 halo@

화폐 액면단위 변경 필요성 솔솔~

한은 "국민들 화폐 의식 무뎠고 낭비 요인 커"

1962년 제3차 화폐개혁 이후 우리 통화는 한 번도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단위 변경)을 하지 않았다. 그간 500원권인 최고액 지폐는 5만원권으로 무려 100배 커졌다. 2002년 한 국은행이 1000원을 1환으로 바꿔 달러와 가치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려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관료들의 반대로 백지화됐다. 그 대신 5만원권이 2009년 등장했다. 이 때문에 '경(京)단위 경제통계'가 술라다. 1경은 1조(兆)의 1만배에 해당한다. '0'만 16개다. 때문에 한국은행과 금융권 일각에선 이제 화폐 액면 단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은 전직 임원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가격 표시에서 무의미하게 쓰는 숫자 '0'을 2~3개 없애는(리)디노미네이션을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억'이나 '조'와 같은 단위를 남발하면서 국민의 화폐 의식이 무뎠고 장부, 기기에도 무의미하게 0을 써넣는 등 낭비 요소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시중 커피전문점 등에서 '아메리카노 4.0'나 '코스메뉴 A 3.3'처럼 1000원 이하를 버리고 표기하는 예가 많다. 시민은 이미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수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대체로 낮게 본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편의는 추가하기 쉽지 않지만 비용은 엄청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건희 회장 주식가치 12조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장주식 가치 12조원을 돌파했다. 14일 재벌닷컴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10대 그룹 총수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전년 동기 기준으로 평가

한 결과 이건희 회장은 12조102억원 을 기록했다. 이 회장의 지분가치는 지난해 2월 13일 9조1555억 원이었으나 1년 만에 31.2%(2조8547억 원) 증가해 12조원을 돌파했다. 이 회장의 지분가

치가 이렇게 증가한 주요 원인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가 상승이다. 이 회장이 3.38%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13일 종가가 108만3000원에서 전날 148만7000원으로 37.3% 상승했다. 또 이 회장이 20.8%의 지분을 가진 삼성생명도 이 기간 8만6300원에서 10만7000원으로 24% 올랐다. /연합뉴스

20대 최고 선호직업은 '공무원'

첫 연봉 2800만원 희망

취업을 준비하는 20~30대는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첫째 연봉은 2800만원 수준을 희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3년 1월 20~30대 취업 준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을 했더니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7.9%가 목표 직장(직업)으로 '공무원'을 꼽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유명벤처와 증권기업이 26.4%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23.6%), 대기업(22.1%)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대기업(29.5%) 유명벤처·증권기업(28.6%) 공무원(24.5%) 중소기업(17.4%) 순이지만 여자는 공무원(29.9%) 중소기업(27.1%) 유명벤처·중소기업(25.2%) 대기업(17.9%)으로 큰 차이가 났다. 초임 연봉은 평균 2790만 원(대졸 기준)으로 파악됐다. 남자는 평균 2860만 원, 여자는 2760만 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가 283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부산·울산·경남 거주자가 262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들은 취업 준비를 위해 월평균 27만원(25만2000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25만1000원)보다 남자(31만2000원)가 더 많았다. 취업 준비금 조달은 본인 해결(54.7%), 부모 도움(45.3%) 등이다. /연합뉴스

개미들 "올 주식시장 긍정적" 42% "10%이상 상승"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국내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투자 규모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투자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개인투자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자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따르면 개인투자자 42.3%가 올해 국내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10% 이상 상승'이라고 예상했다. '10% 이상 하락' 응답자는 13.6%였다. 올해 투자 계획으로는 '투자 규모 확대'가 18.5%로 지난해 조사 당시 13.2%보다 증가했다. '투자 규모 축소'는 14.7%로 지난해(14.7%)보다 줄어 투자 확대 의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투자금액은 직접투자자의 57.6%와 간접투자자의 55.7%가 '1000만~5000만 원'이라고 답했다. 투자 목적으로는 직접투자자는 '생활 자금 마련'(35.5%), 간접투자자는 '노후대책 자금 마련'(29.1%)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주식 1개 종목의 '6개월 이상' 보유 비율은 40.0%로 지난해 조사의 36.5%보다 증가했다. 직접 투자시연간 기대 수익률은 평균 18.3%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간접투자자 중 적립식 펀드 가입자 비율은 88.0%였다.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6대 도시에 거주하고 증권계좌를 보유한 만 25세 이상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Daeneung's Korean and Foreign Language Series. The banner features the text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and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It lists various book series including '알짜배기 여행회화 시리즈',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and '한자능력검정 시리즈'. A gold trophy icon indicates it is a '2012 DAENEUNG's Best Seller'. The ad also mentions '포켓 사이즈', 'MP3 무로다운', and '효율적 학습' features. At the bottom, it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대표전화 : 02)2634-200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and the website 'www.daeneungedu.com'.